

‘만약에...’

행복에 대한 국민 생각 엿보기

■ 소원 : '결핍'에 대한 생각

- _ 국민들, ‘부자’ 되고 싶고 ‘지적 능력’ 소원해
- _ 국민 다수가 되고 싶은 사람, ‘부자’
- _ 재능, 4060세대는 ‘지적 능력’, 2030세대는 ‘외모’
- _ 국민 다수 마지막 소원, ‘가족을 위해 쓰겠다’

■ 타임머신 : 지금 삶에 대한 생각과 미래 전망

- _ 20대로 가고 싶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
- _ 가고 싶은 나이대, ‘과거’이고 특히 ‘20대’ 높아
- _ 국민 절대 다수, 인생 마지막 모습 ‘행복할 것’
- _ 100년 후 대한민국, ‘세계주도 최고 선진국’ 전망

■ 돈과 시간 : 정말 하고 싶은 것

- _ 국민들, ‘여행’에 대한 욕구 매우 강해
- _ 천 만원 생기면 ‘여행’ 높고, 다음은 ‘투자’
- _ 한 달 시간 생기면 ‘여행’ 매우 높고, 다음은 ‘휴식’
- _ 천 만원 + 한 달 생기면 ‘여행’과 ‘가족과 보내기’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4월 8일(금) ~ 4월 10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18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7\%$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소원 : '결핍'에 대한 생각

국민들, '부자'되고 싶고 '지적 능력' 소원해

- 행복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함
- 질문 결과 국민 다수는 '부자 되기'를 원하고, '지적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된 질문은 두 가지로 먼저, "만약에 마법사가 나타나,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고 하면 선생님은 다음 중 무엇을 원하시겠어요?"라고 질문함
 - 다음은 "만약에 마법사가 소원 하나를 더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재능을 주겠다고 하면 선생님은 다음 중 어떤 재능을 원하시겠어요?"라고 질문함
- 첫 번째 질문인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해 62%의 국민이 '부자 되기'를 소원했으며, 다음으로 '건강한 사람되기'(33%), '유명한 사람되기'(4%), '대통령 되기'(1%) 순으로 응답함
- 다음의 '갖고 싶은 재능'에 대해서는 '지적 능력'이 3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빼어난 외모'(29%), '예술적 재능'(17%), '운동 잘하는 능력'(11%), '말 잘하는 능력'(11%) 등으로 조사됨
- 마지막으로 소원 하나를 더 들어줄 경우 누구를 위해 소원을 사용할지 질문한 결과, '가족을 위해 쓰겠다'는 응답이 47%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나를 위해 쓰겠다'(38%), '세상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14%) 순으로 나타남
 - "만약에 마법사가 마지막으로 소원 하나를 더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누구를 위해 소원을 쓸 것인지를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라고 질문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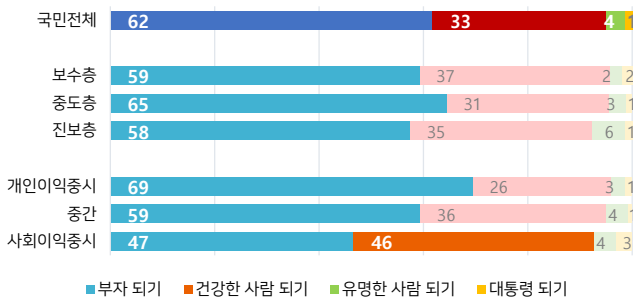
Kstat Point

- ☑ 일반적으로 '소원'하는 것은 자신에게 없는(결핍) 것을 원한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함
- ☑ 갖고 싶은 재능으로 '지적 능력'과 '빼어난 외모'를 원하는 것은 이를 통해 '부자 되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 ☑ 한편, 마지막 소원을 '가족을 위해 쓰겠다'는 국민이 우세하지만, '나를 위해 쓰겠다'는 국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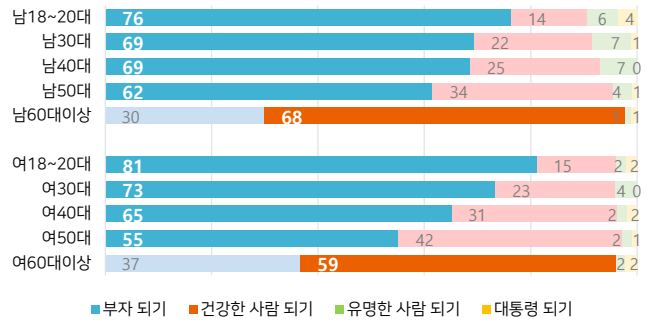
□ 국민 다수가 되고 싶은 사람, '부자'

- '소원'에 대한 국민응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국민의견은 '부자'가 가장 많음
 - '되고 싶은 사람'의 선택지로 제시한 것은 통상 사람들이 꿈꾸는 세 가지(부, 권력, 명예)에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건강'을 추가한 것임
- 국민 다수는 '부자'를 원하며(62%), 다음으로는 '건강'(33%)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비해 '유명한 사람(명예)'은 4%에 그치고, '대통령 되기'(권력)는 1%에 불과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부자 되기'가 높았으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2030세대 △충청권 △학생 △불행하다 인식층 등임
 - 사회이익 중시층은 '부자되기' 47% vs '건강한 사람되기' 46%로 팽팽함
- '건강한 사람 되기'가 우세한 계층은 △남자 60대이상 △여자 60대이상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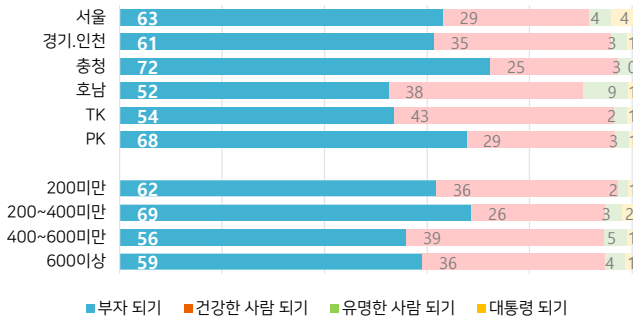
소원, '되고 싶은 사람' : 국민전체, 이념별, 이득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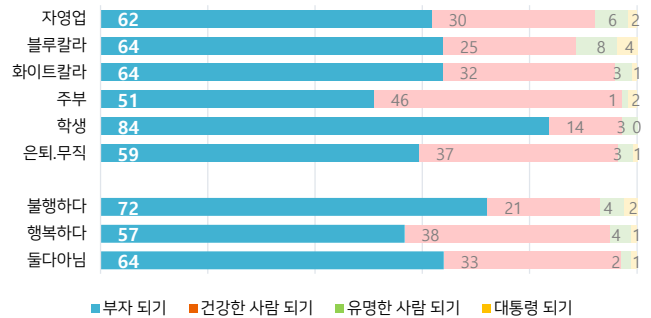
소원, '되고 싶은 사람' : 성/연령별 (2022.04.10조사,단위:%)



소원, '되고 싶은 사람' : 지역별, 소득별 (2022.04.10조사,단위:%)



소원, '되고 싶은 사람' : 직업별, 주관적 행복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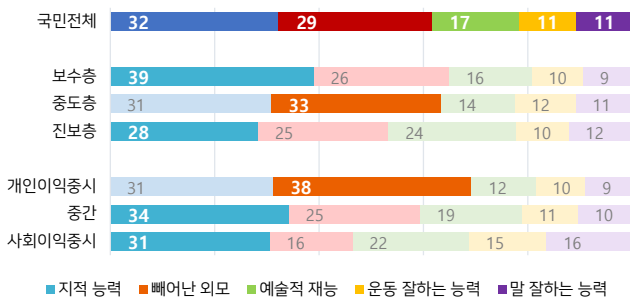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다수는 경제적 문제로 인한 걱정과 고민이 많으며, 특히 남자 20대와 여자 2030세대에서 그 정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남
 - : 이전 케이스탯의 '소득,일자리 등 경제문제 불안 정도' 조사에서도 여자 2030세대의 불안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6호 『한국민 '불안 의식' 진단 및 분석』 참고)
- ☑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계층에서 '부자 되기' 응답이 특히 높은 것은, 이들이 스스로의 불행 이유를 주로 경제 문제에서 찾기 때문으로 보임
- ☑ 한편, 60대이상 남녀는 다른 세대와 달리 '건강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특징을 강하게 드러냄
 - : 이는 '육체적 노쇠화'에 직면한 이들 세대의 특성 때문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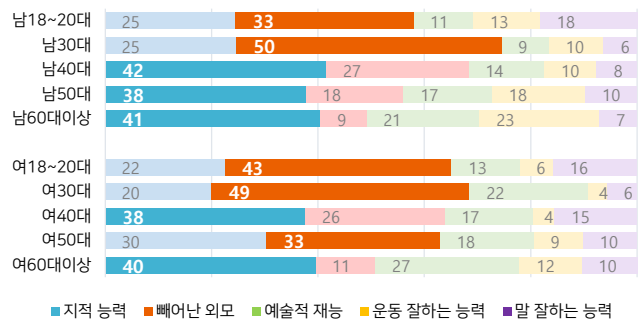
□ 재능, 4060세대는 '지적 능력', 2030세대는 '외모'

- '두 번째 소원'인 '갖고 싶은 재능'에 대해서는 '지적 능력'이 32%로 가장 많고, 근소한 차이로 '빼어난 외모'(29%)가 뒤를 이음
 - 다음으로 '예술적 재능'(17%), '운동 잘하는 능력'(11%), '말 잘하는 능력'(11%)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소원하는 재능이 다른데, '지적 능력'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 진보층 △사회이익중시층, 중간층 △남자 4060세대 △여자 40대, 여자 60대이상 △경기.인천, 충청, 호남, TK, PK △400만원 이상 소득층 △자영업, 화이트칼라, 은퇴.무직자 △행복하다 인식층 등임
 - '지적 능력'과 '빼어난 외모'가 팽팽한 계층은 △서울 △400만원 미만 소득층 등임
- 이에 비해 '빼어난 외모'가 우세한 계층은 △중도층 △개인이익 중시층 △남자 2030세대 △여자 2030세대, 여자 50대 △블루칼라, 주부, 학생 △불행하다 인식층, 둘다아님(행복도 불행하지도 않다)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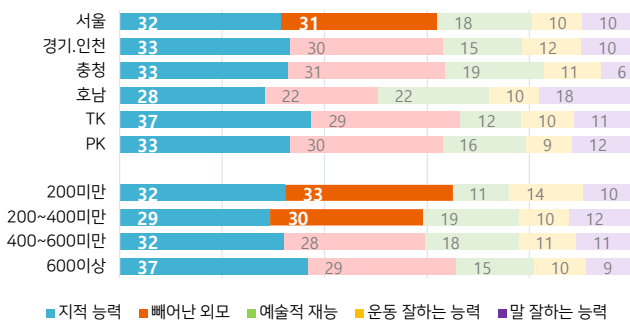
소원, '갖고 싶은 재능':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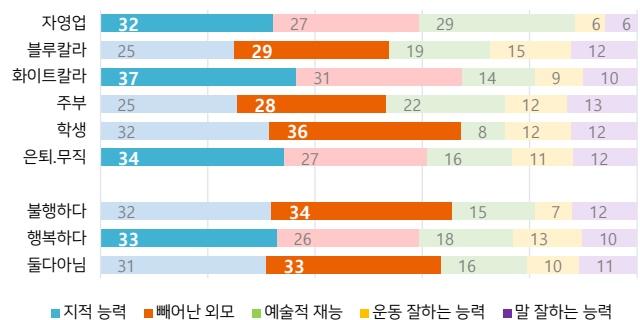
소원, '갖고 싶은 재능': 성/연령별 (2022.04.10조사,단위:%)



소원, '갖고 싶은 재능': 지역별,소득별 (2022.04.10조사,단위:%)



소원, '갖고 싶은 재능': 직업별,주관적 행복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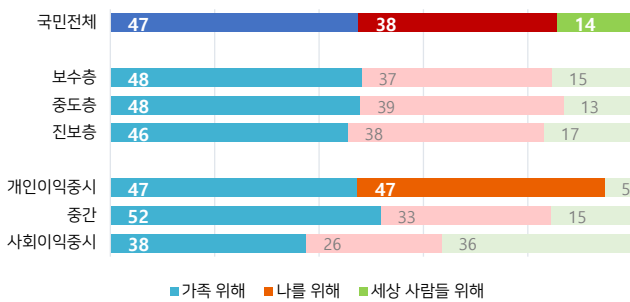
Kstat Point

- ☑ '갖고 싶은 재능'에 대한 세대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데, 4060세대는 '지적 능력'을 소원하는 데 비해 2030세대는 '빼어난 외모'를 소원함
 - : 여자 50대만 예외적으로 근소하게 '빼어난 외모'가 우세함
- ☑ 앞서 '되고 싶은 사람과 연계해 생각하면 '부자 되기'에 필요한 재능으로 4060세대는 '지적 능력'을 꼽고, 2030세대는 '빼어난 외모'를 꼽은 것으로 보임
 - : 경제적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세대적 인식 차이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변화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 즉, 노동소득만으로 부자가 되기 어려워진 상황(빈부격차 심화)과 대중문화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이른 나이에 부를 획득한 연예인들이 많아진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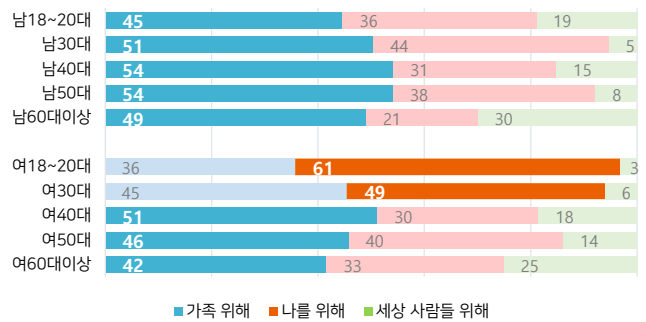
□ 국민 다수 마지막 소원, '가족을 위해 쓰겠다'

- '마지막 소원'을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민 중 47%는 '가족을 위해 쓰겠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나를 위해 쓰겠다'(38%), '세상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14%) 순으로 응답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가족을 위해 쓰겠다'는 응답이 우세한데, 특히 높은 계층은 △사회이익 중간층 △남자 4050세대 △경기.인천 △400만원 이상 소득층 △블루칼라, 주부 △행복하다 인식층 등임
 - '가족을 위해 쓰겠다'와 '나를 위해 쓰겠다'가 팽팽한 계층은 △개인이익 중시층 △서울 △200~400만원 미만 소득층 △둘다아님(행복도 불행하지도 않다) 계층 등임
- '나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이 우세한 △여자 2030세대 △200만원미만 저소득층 △은퇴.무직자 △불행하다 인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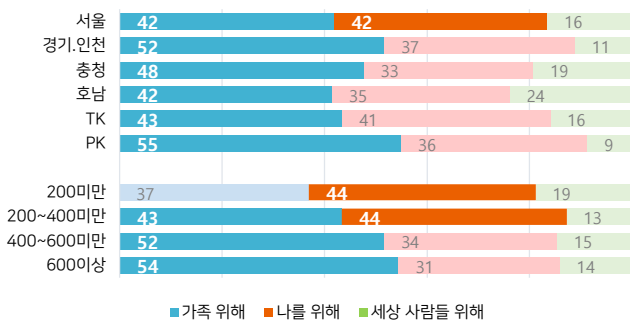
마지막 소원, '사용 대상'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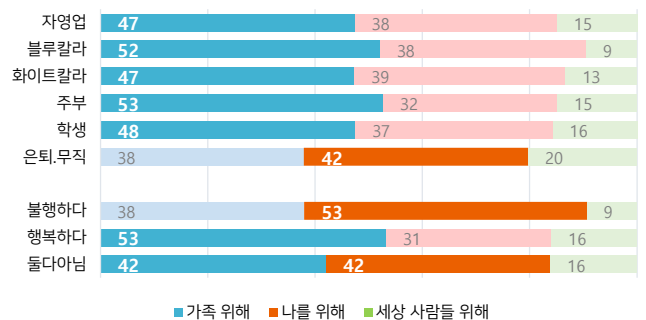
마지막 소원, '사용 대상' : 성/연령별 (2022.04.14조사,단위:%)



마지막 소원, '사용 대상' : 지역별,소득별 (2022.04.10조사,단위:%)



마지막 소원, '사용 대상' : 직업별,주관적 행복별 (단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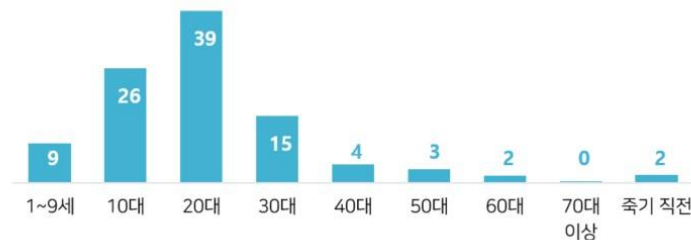
- ☑ 마지막 소원 사용에 대한 계층별 응답에서 주목되는 지점은 '나를 위해 쓰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임
 - : '가족을 위해 쓰겠다'는 응답이 우세하지만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으며, 특히 여자 2030세대의 경우 '나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이 우세함
- ☑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가족 중심 사회'에서 '나'를 중시하는 '개인주의 사회'로 빠르게 이행 중인 것으로 분석됨
 - : 이전 케이스탯의 '편안함을 느끼는 시간'에 대한 조사에서도 가족과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5060세대는 가족과 있을 때 편안하다고 응답함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15호 『사회,가족,개인에 대한 국민의식 분석』 참고](#))
- ☑ 한편, '세상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는 응답이 낮은 것에서 보듯, 사회공동체에 대한 신뢰 또는 기대감이 매우 낮음

▶ 타임머신 : 지금 삶에 대한 생각과 미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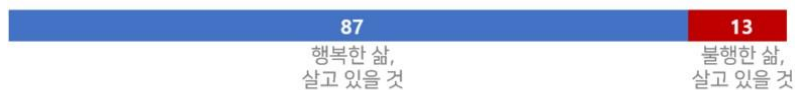
□ 20대로 가고 싶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

- 지금의 삶에 대한 생각과 미래 삶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타임머신'을 활용한 질문을 던짐
- 질문 결과 국민 다수는 행복한 나이로 '20대'를 꼽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자신의 삶과 대한민국 모두 낙관적으로 전망함
- 먼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이로 국민의 39%가 20대를 꼽았으며, 다음은 10대(26%), 30대(15%) 순으로 응답함
 - 질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먼저 "만약에 타임머신이 있고, 선생님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이'로 갈 수 있다면(과거든, 미래든 상관없이) 어느 나이대로 가고 싶으세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임
- 인생 마지막 모습에 대해 87%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함
 - 질문 : "타임머신을 타고 선생님 인생의 마지막 시기로 간다면, 그때의 선생님은 어떤 모습일 것으로 생각하세요?"
- 100년 후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76%의 국민이 '세계를 주도하는 최고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함
 - 질문 :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후 대한민국을 간다면 그때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 것으로 생각하세요?"

타임머신, '가고 싶은 나시대'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04.10.단위:%)



타임머신, '인생 마지막 모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04.10.단위:%)



타임머신, '100년 후 대한민국 모습'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2022.04.10.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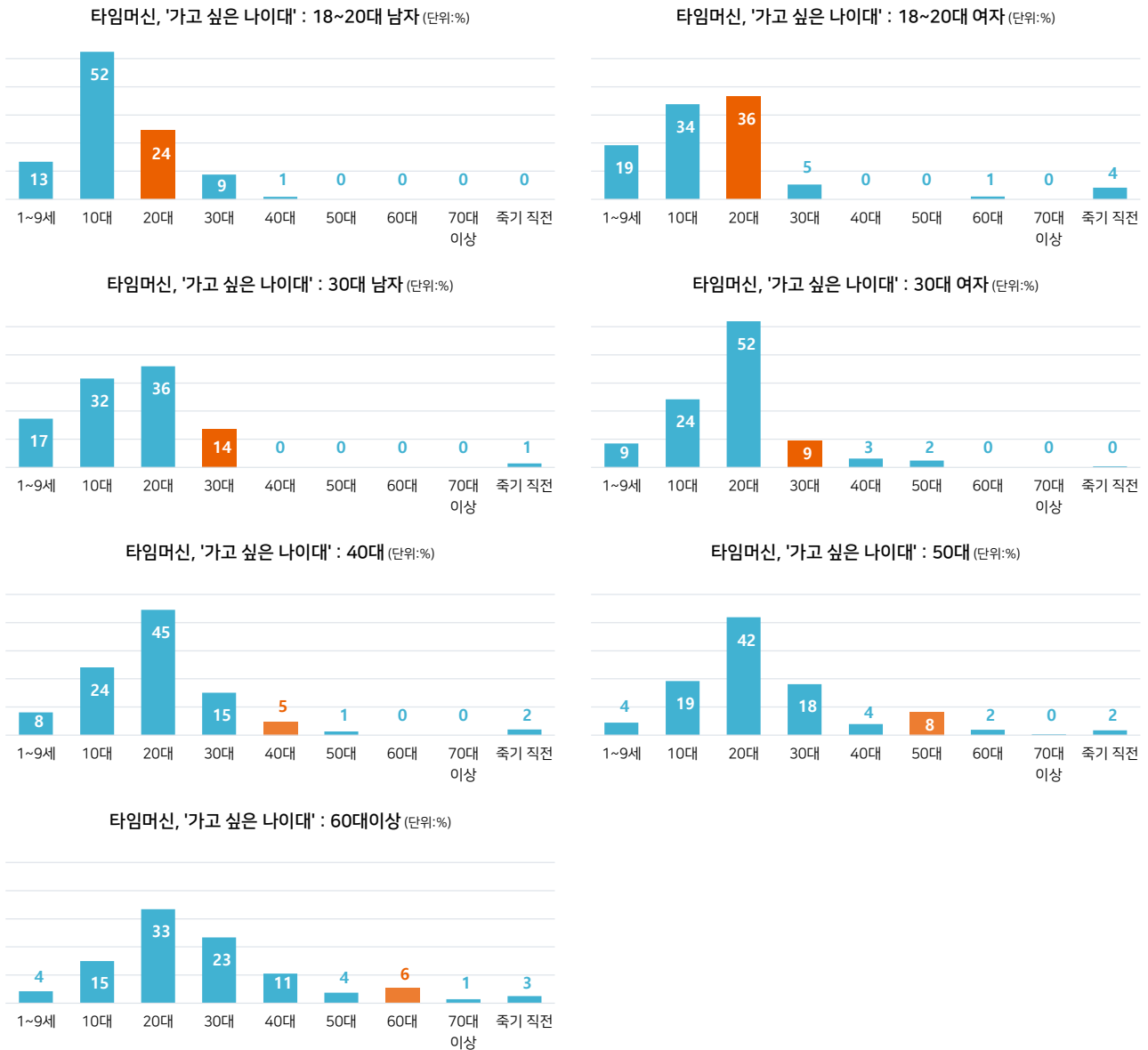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10~30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만큼 인생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 과거에 대한 향수가 강한 것으로 보임
- ☑ 하지만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으며(인생 마지막, 행복한 삶 살고 있을 것), 삶의 토대인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전망함
 - : 인간인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제는 '희망'이라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됨

□ 가고 싶은 나이대, '과거'이고 특히 '20대' 높아

- 우리 국민들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이대'로 '미래'가 아닌 '현재를 포함한 과거'를 꼽음
- 특히 거의 모든 성/연령에서 '20대'로 가고 싶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남자 18~20대만 직전 나이대인 '10대'라는 응답이 많음
 - 아래 그림에서 주황색 막대는 응답층의 현재 나이대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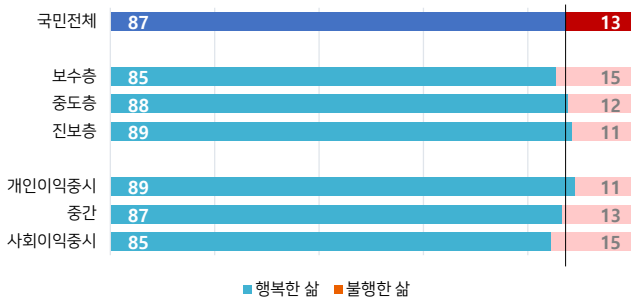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과거가 행복했다는 생각이 강하며, 그만큼 현재 삶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 특히 'n포 세대'라고 불리는 2030세대도 40대나 50대의 삶에서 행복을 기대하지 않는 점이 주목됨
- ☑ 한편, 거의 모든 성/연령층(남자 20대 제외)이 '20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응답이 높음
 - : 이는 지금 20대의 힘겨운 삶과 무관하게, 20대 '청춘'에 대한 추억과 동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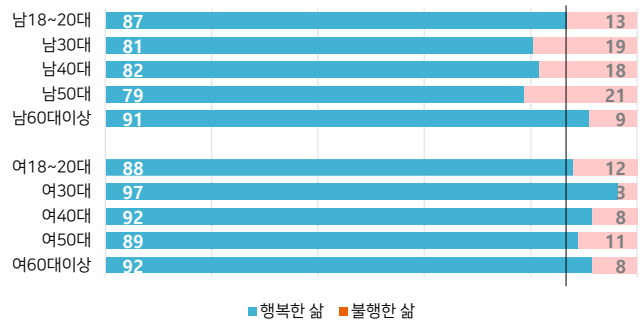
□ 국민 절대 다수, 인생 마지막 모습 '행복할 것'

- 타임머신을 타고 인생 마지막 시기로 갔을 때의 모습에 대해 국민의 87%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함
 -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행복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개인이익 중시층 △남자 60대이상 △여자 3060세대 △충청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 △화이트칼라, 주부 △행복하다 인식층 등임
- '불행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3050세대 △블루칼라, 은퇴.무직 △불행하다 인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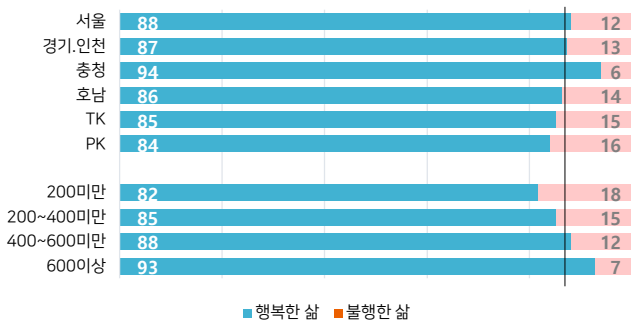
타임머신, '인생 마지막 모습'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4.10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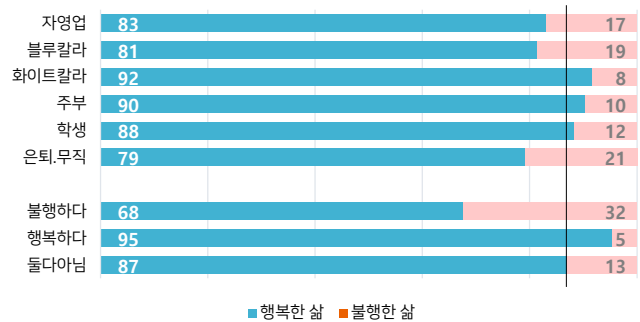
타임머신, '인생 마지막 모습' : 성/연령별 (2022.04.10조사, 단위:%)



타임머신, '인생 마지막 모습' : 지역별, 소득별 (단위:%)



타임머신, '인생 마지막 모습' : 직업별, 주관적 행복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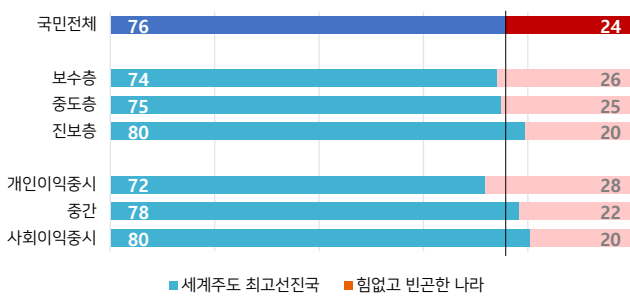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인생 마지막 모습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음
 - : 앞으로의 삶 보다 과거의 삶이 행복했다는 응답과 모순되는 태도지만, '희망'이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존재인 모습에 그대로 투영된 응답으로 보임
- ☑ 한편, 이번 조사에서 평소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행복하다' 57% vs '불행하다' 23% vs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다' 20%로 나타남
 - : '행복하다'는 응답층은 인생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도 절대다수(95%)가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응답함
 - : 이에 비해 '불행하다'는 응답층은 불행한 삶을 살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32%) 지금의 삶이 미래 삶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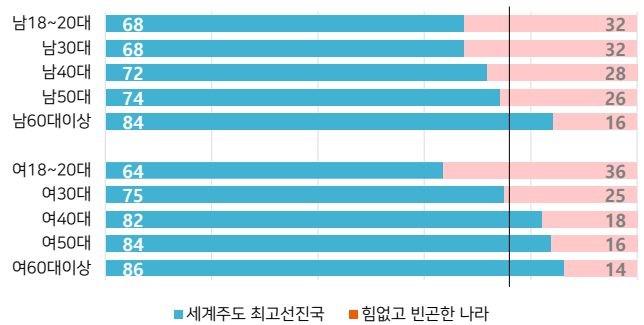
□ 100년 후 대한민국, '세계주도 최고 선진국' 전망

-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후 대한민국을 갔을 때, 우리나라 모습에 대해 76%의 국민이 '세계를 주도하는 최고 선진국이 되어 있을 것이다'고 응답함
 - '다른 나라 눈치보는 힘없고 빈곤한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세계주도 최고 선진국'이라는 응답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남자 60대이상 △여자 4060세대 △충청 △자영업, 주부 △행복하다 인식층 등임
- '힘없고 빈곤한 나라'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18~20대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블루칼라, 학생 △불행하다 인식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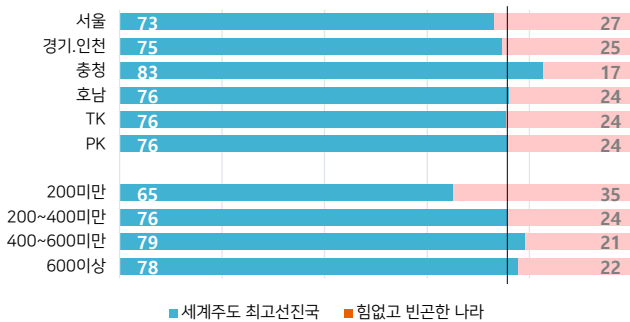
타임머신, '100년 후 대한민국 모습'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4.10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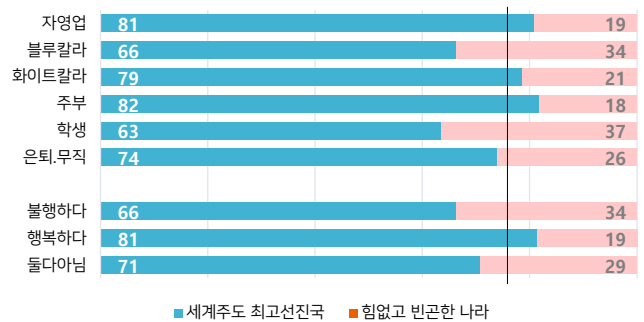
타임머신, '100년 후 대한민국 모습' : 성/연령별 (단위:%)



타임머신, '100년 후 대한민국 모습' : 지역별, 소득별 (단위:%)



타임머신, '100년 후 대한민국' : 직업별, 주관적 행복별 (단위:%)



Kstat Point

- ☑ 국민 대다수는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
- ☑ 그러나 2030세대와 4060세대 간의 인식차이가 드러나는데, 2030세대는 대한민국 미래에 비관적인 의견이 많음
 - : 남자 2030세대는 '힘없고 빈곤한 나라'라는 응답이 공히 32%를 기록함
 - : 여자 18~20대는 36%로 가장 비관적으로 전망함
- ☑ 한국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2030세대가 다소 비관적 전망을 하는 것은, 지금의 한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생각 때문으로 분석됨
 - : 2030세대는 자신 세대에 태어난 것에 대해 '불행한 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처해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 대해 비판적임(4060세대는 '행복한 편'이라고 생각)
 -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케이스탯 리포트 37호 『한국민 '세대 의식' 집중 분석』 참고

돈과 시간 : 정말 하고 싶은 것

국민들, '여행'에 대한 욕구 매우 강해

- 국민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돈과 시간에 대한 자유도를 구분해 질문함
- 질문 결과 국민들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여행'을 꼽음
- 먼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천만원'이 생길 경우 하고 싶은 것으로 '여행'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투자'(21%), '저축'(16%) 순으로 응답함
 - 질문 : "만약에 선생님에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천 만원이 생긴다면, 선생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 '한 달의 자유로운 시간'이 생길 경우 하고 싶은 것으로도 '여행'이 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휴식'(10%), '가족과 보내기'(9%) 등으로 조사됨
 - 질문 : "만약에 선생님에게 한 달의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면, 선생님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 마지막으로 '천만원과 한 달의 시간'이 생길 경우에도 '여행' 51%로 1위였고, 다음으로 '가족과 보내기' 10%, '투자'(7%) 순으로 응답함
 - 질문 : "만약에 선생님에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천만원과 한 달의 시간이 함께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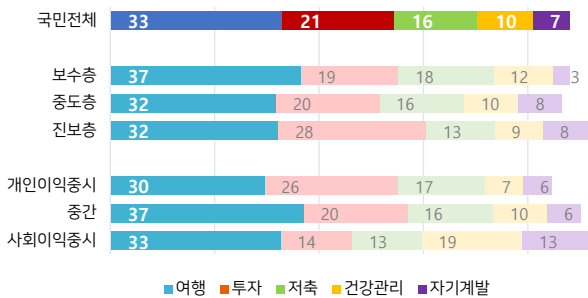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 또는 시간이 생길 경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생길 경우 등, 언제나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행'인 것으로 나타남
- ☑ '여행'에 대한 욕구는 기왕에도 높았으나 코로나19로 2년이 넘도록 여행을 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욕구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임
 - :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라 5월부터 '여행' 붐이 시작되고, 여름휴가철에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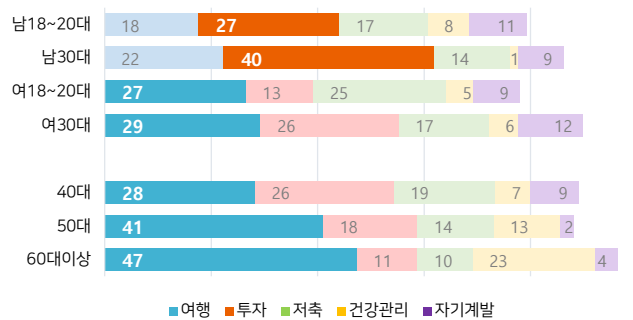
□ 천만원 생기면 '여행' 높고, 다음은 '투자'

-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천 만원이 생길 경우' 국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행'(33%)이고, 다음은 '투자'(21%), '저축'(16%) 순으로 조사됨
 - 아래 그림은 총 8개 응답 중 상위 5개 응답만 표시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여행'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보수층 △사회이익 중간층 △5060세대 △서울, 호남 △주부 등임
 - PK지역은 '여행'과 '투자'가 공히 27%로 높게 나타남
- 남자 2030세대에서는 '투자'가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 30대는 40%로 매우 높음
- 여자 2030세대는 '저축'이라는 응답이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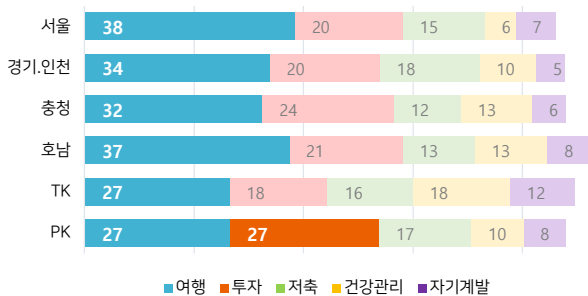
만약에, 천만원 생긴다면...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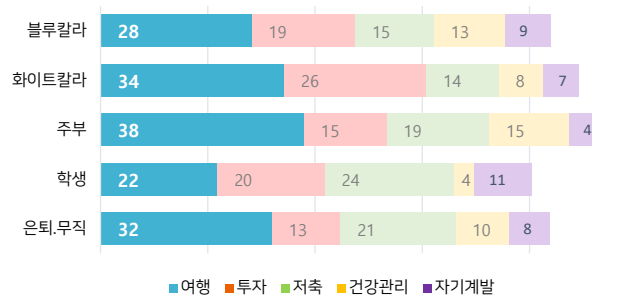
만약에, 천만원 생긴다면... : 성/연령별 (2022.04.10조사,단위:%)



만약에, 천만원 생긴다면...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



만약에, 천만원 생긴다면...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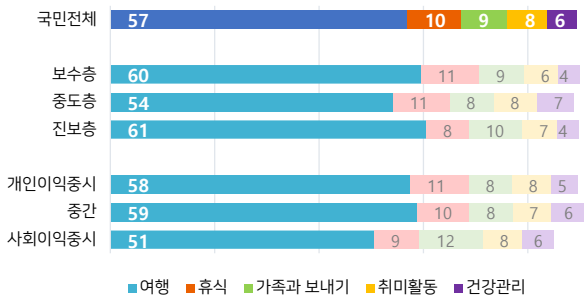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천 만원이 생길 경우 '여행'을 하겠다는 응답이 우세하지만, '투자'하겠다는 응답도 높음
 - : 남자 2030세대에서는 '투자' 응답이 1위를 기록했으며, 여자 30대, 40대에서도 응답 비중이 높은 편임
 - : 2030세대만 놓고 보면 여자 20대만 예외적으로 '투자'에 대한 생각이 낮음(13%)
- ☑ 작년 한 해 동안 이른바 '영끌족'으로 불리면서 부동산과 주식, 코인투자의 주역으로 부상한 2030세대의 모습이 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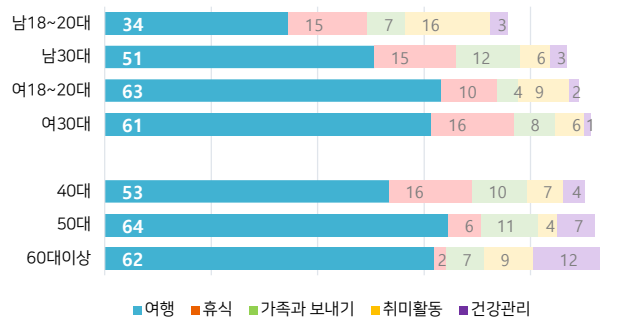
□ 한 달 시간 생기면 '여행' 매우 높고, 다음은 '휴식'

- '한 달의 자유로운 시간이 생길 경우' 국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행'이 57%로 매우 높고, 다음은 '휴식'(10%), '가족과 보내기'(9%) 순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은 총 8개 응답 중 상위 5개 응답만 표시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여행'이 절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진보층 △여자 2030세대, 5060세대 △서울 △자영업, 주부 등임
- '여행' 응답이 낮은 계층은 △사회이의 중시층 △남자 2030세대 △TK △블루칼라, 학생 등임
 - 특히 남자 18~20대는 34%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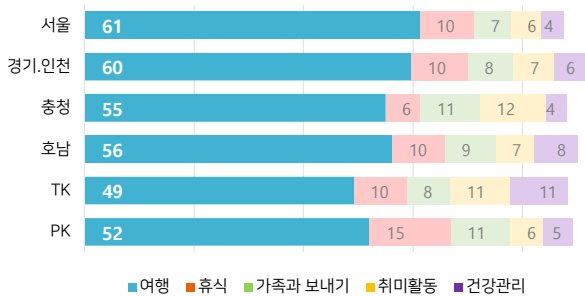
만약에, 한 달 시간 생기다면... : 국민전체, 이념별, 이익층시별
(자료:케이스탯, 2022.04.10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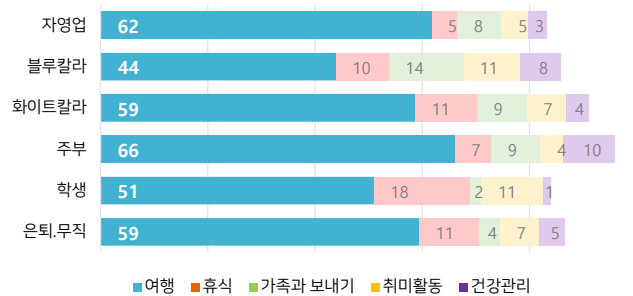
만약에, 한 달 시간 생기다면... : 성/연령별 (2022.04.10조사, 단위:%)



만약에, 한 달 시간 생기다면...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 2022.04.10조사, 단위:%)



만약에, 한 달 시간 생기다면...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 2022.04.10조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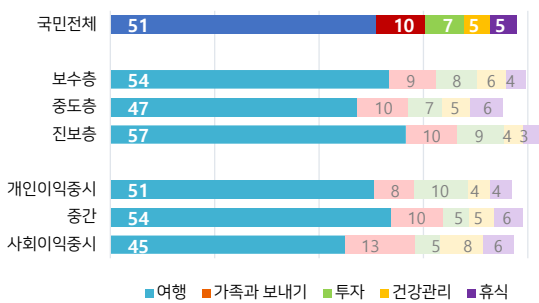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천 만원이 생길 경우 '여행'을 하겠다는 응답(33%)보다, 자유로운 한 달 시간 생길 경우 '여행' 하겠다는 응답(57%)이 더 높음
 - : 언뜻 '여행'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돈'보다 '시간'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지점임
 - : 그러나 '돈'이 생길 경우에는 '투자' 또는 '저축' 응답비중이 높았기 때문으로, 그만큼 여윌돈이 생길 때 '재테크'를 하려는 국민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됨
- ☑ 한편, 2030세대만 놓고 보면 남녀 간 차이가 있는데, 여자 2030세대는 국민전체보다 '여행' 응답이 높고, 남자 2030세대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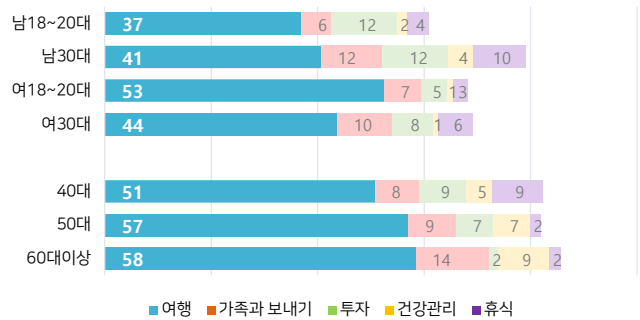
□ 천만원 + 한 달 생기면 '여행'과 '가족과 보내기'

-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천만원과 한 달 시간이 생길 경우' 국민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행'(51%) 이고, 다음은 '가족과 보내기'(10%), '투자'(7%) 순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은 총 12개 응답 중 상위 5개 응답만 표시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여행'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진보층 △5060세대 △주부 등임
- '여행' 응답이 낮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TK △블루칼라, 학생 등임
 - 특히 남자 18~20대는 37%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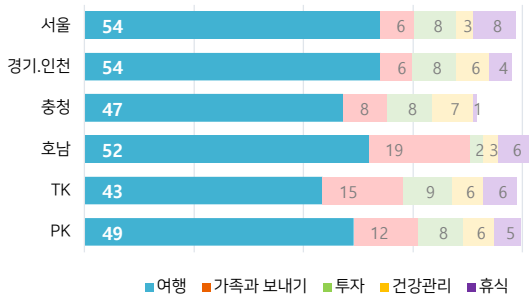
천만원 + 한 달 생기면... : 국민전체,이념별,이익층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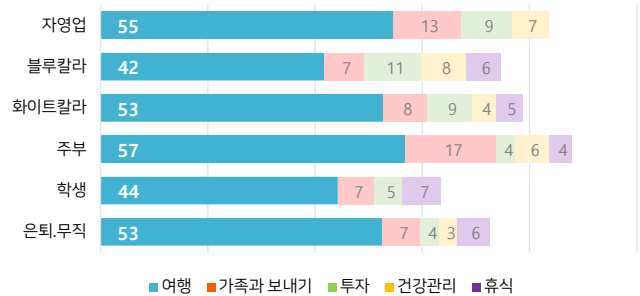
천만원 + 한 달 생기면... : 성/연령별 (2022.04.10조사,단위:%)



천만원 + 한 달 생기면... : 지역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



천만원 + 한 달 생기면... : 직업별
(자료:케이스탯,2022.04.10조사,단위:%)



Kstat Point

- ☑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천만원과 시간이 생길 경우 '여행' 응답은 51%를 기록함
 - : 천만원만 있을 경우 '여행'을 하겠다는 응답(33%)보다 높고, 자유로운 한 달 시간 생길 경우 응답(57%)보다 소폭 낮음
 - : 소폭 낮은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돈'이 생겼을 때 '투자' 또는 '저축'하겠다는 응답 때문으로, 이번에도 '투자' 7%, '저축' 5%의 응답이 발생함
- ☑ 한편, 남자 18~20대는 '여행'을 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모든 계층에 걸쳐 언제나 가장 낮은 특징을 보임
 - : 천만원 생길 경우 18%, 한 달 시간 생길 경우 34%, 천만원 + 한 달 시간 경우 37%
 - : 이는 남자 18~20대가 다른 성/연령에 비해 심적 여유가 부족한 때문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49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49호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주제로 4월 28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